

'안풍' 보다 강한 '문풍' 민주당, 호남 석권 성큼

21대총선 文 지지도 ↑...與 싸움이 가능성



4년 전 호남에서 불었던 '안풍(安風·안철수바람)'이 이번엔 '문풍(文風·문재인바람)'으로 바뀌었다.

'문풍'이 20대 총선 당시 '안풍'보다 더 거세다는 평가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호남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5 총선을 3일 앞두고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앞세운 여당의 돌풍이 거세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2~3곳을 제외한 대다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접전을 펼치고 있는 2~3곳 또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 '싸움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 대표

를 내세운 국민의당이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에서 승리했다. 광주·전남에서는 18석 가운데 국민의당이 16석(광주 8석·전남 8석)을 휩쓸었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대패하며 국민의당은 쪼개졌다.

국민의당 출신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다시 문맹당을 창당해 텃밭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약전고투하고 있다.

4년 전 '안철수'처럼 구심점이 없는데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점을 찍으며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다음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 20개 광주시의원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며 텃밭 탈환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텃밭 굳기기를 선언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전국 평균 57%인 데 반해, 호남은 83%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지율은 44%인 반면 호남에서는 20%p가 높은 64%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쉼터서치부가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전국 평균은 매우 잘함 32%, 다소 잘함 23% 등 긍정 평가가 55%였다.

반면 호남에서는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매우 잘함 49%, 다소 잘함 38% 등 긍정 평가가 87%에 육박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국 평균 44%를 훨씬 상회하는 66%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광주·전남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현 정부 지지라는 훈풍을 타고 비교적 순쉬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재산축소신고 의혹 관련 이의제기

정의당 나경채, 해명 요구

광주 광산갑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지난 6일 TV 토론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용빈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나경채 후보는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용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빈 후보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 이용빈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어등산과 황룡강 인근에 배우자 명의 토지 신고한 토지를 발견하여 계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빈 후보가 신고한 토지 2건의 금액이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기준과 달리 총 4억 5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이용빈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순천갑' 소병철 vs 노관규 격전...표심은 누구에게?

소 "집권 여당의 힘있는 일꾼 될 것"

노 "찢겨진 시민 자존심 살리겠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르며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오후 비바람이 부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 상설시장 사거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말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손을 흔들며 표심을 공략했다.

소 후보는 "지난 10년의 잃어버린 순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중앙에서 저를 내려보냈다"며 "집권 여당의 힘있는 일꾼이 되어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저를 순천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면 해룡면 선거구를 되찾고, 의대유치와 여순사건특별법과 함께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시각 조례동과 연향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유세에 나선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홀로 유세차를 타고 비를 맞으며 잠긴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민주당의 '쫓개기 선거구' 확정이란 정치 폭력으로 처참하게 짓밟힌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또 "순천이 키운 노관규가 순천을 위해 20년을 공부하고 준비했다"며 "기호 10번 노관규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열매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

두 후보는 검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소 후보는 순천 해룡면 출신으로 성동초,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검 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농협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을 하던 중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전략공천까지 받아냈다.

노관규 후보는 오늘날 순천민국 가정원을 있게 한 주인공으로 순천 매산고를 졸업하고 구로공단 노동자로 일하다 9급 공무원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후 한보그룹 정태수 비자금 사건, YS 아들 김현철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 이름을 알렸다.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간 그는 16·17대 총선에서 연속 낙선한 후 민선 4~5기 순천시장을 역임했으나 국회입성에 실패했고, 이번 총선을 준비하던 중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전략공천에 눈물을 흘리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치락뒤치락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도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도 상대의 기를 꺾기위한 각자의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동안 다져온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노총전남본부 여수지부, 주철현·김희재 지지 선언

"여수발전 역량확신·노동현안 해결 힘 있는 후보"



한국노총전남본부 여수지역지부(의장 김성춘)는 9일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여수지역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주철현·김희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수지역지부는 성명을 통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 민주당의 공동협약인 노동존중 5대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여수지역지부 또한 금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리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총 여수

지역 전 조합원의 조직적 역량을 모아 여수 갑·을 지부 두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 및 가족이 단결된 힘으로 선거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결의 했다.

주철현·김희재 후보야말로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여수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두 후보는 노동자와 시민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또한 질 좋은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창출에 앞장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며 여수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여수-김도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